▌이베로아메리카 제10권 2호 [2008.12] : 151~176

반유대주의운동과 스페인 근대 종교재판소에있어서 거짓 개종 유대인 문제

박 종 욱*
Park, Chong-Wook

<Abstract>

A Study on the Anti-judaism and the False Conversion of the Jews in the Spanish Modern Inquisition

At the year of 1478 the Holy See granted papal permiss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nquisition in the regions of Castilla and of Aragón under the authorities of the christian kings, Isabel de Castilla y Fernando de Aragón who had wanted to reunify the iberian peninsula with the crusade spirituality. Since that symbolic year the Spanish Modern Inquisition started his obsessive and immoderate role to get rid of the impure elements such as judaism, muslim, albigenses, waldenses, cathari, etc. Its' most important role was cleaning and purifying the blood that had been considered religiously contaminated by the false conversion. In fact, in iberian peninsula there were many jews who had just converted officially to survive in the spanish regions, but not to live as christians. The Spanish Modern Inquisition was not allowed of the right to investigate the jews, muslims and other pagans if they were not converted to christianity. So, the only thing that the Inquisition could

* 배재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E-mail: simon-park@hanmail.net

do was just accusing the false converts and persecute them as they would have deserved. Finally at the year of 1492 the spanish kingdom could make the political-religious decision for a Massive Expulsion of the Jews who had not accepted the true conversion to the christianity As a matter of fact the false conversion of the jews offered to the Spanish Modern Inquisition the moral and religious justifiability in condemning the Jews as a parasite on the Recently Reunited Spanish Christian Community that tended to anti-judaism.

[Key Word: Spanish Modern Inquisition/ False Conversion/ Image of the Jews/ Anti-judaism/ Anti-semitism/ Expulsion of the Jews]

[: / / / / /]

Ⅰ. 서론

반유대주의[1]와 유대인[2] 문제는 서기 135년 이산(離散: Diaspora)[3]이

1) 반유대주의(Anti-semitism)라는 용어는 1879년 독일 인종주의자 W. Marr가 유대인에 대한 적의를 지칭하는데 처음으로 사용된 이후 관용어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모든 시대와 모든 종류의 반유대주의적 태도와 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김양수 1983, 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세와 근대에 걸쳐 형성되고 존재했던 반유대주의적 경향의 움직임을 종합하여, 반유대주의(Antijudaism)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 현대의 인종주의적 용어와는 근본적으로 구분됨을 밝힌다.

2) 유대인이란 용어는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하나인 유다(Judah)에서 유래된 것으로,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을 일컫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유태란 호칭은 유다의 한자인 유태( )의 소릿값이므로, 유대와 특별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유태 대신 유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유대인, 유대민족, 유대교, 유대주의, 반유대주의 등으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시작된 이래 유대인 집단을 향해 줄곧 제기되는 일련의 종교적이고 인종적인 편견과 박해의 문제들과 함께 서구 사회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으며, 중세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구 사회의 문화적 형성과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한 코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기독교의 등장과 함께 유대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산에 의해 야기된 몇 가지의 상황은 서구 사회에서 유대인 집단을 더욱 특수하고 독특한 성격의 집단으로 파악하도록 만들었다(김종빈 2001,180-191) 중세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급기야 반유대주의적 성격으로 변모되었고(박종욱 2006, 43-47), 거짓 개종 유대인 문제가 종교재판소가 주관하는 이단 심문의 주요 대상 가운데 하나로 정착되면서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가 되었다. 근대 종교재판소는 무슬림과 유대교 등 이교도를 심문하는 권한은 없었으나, 기독교로 개종한 새로운 신자들의 신앙행위가 이단적 요소를 유지하는 지에 대한 심문에 목적이 있었으며(Carcel1990,4), 실질적으로 유대인 문제는 많은 종교재판의 대상이었다. 종교적으로는 알비파나 카타리파 혹은 무슬림의 존재가 유대교인의 존재보다 덜 위협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유대교인들이 스페인 공동체 사회에서 향유하던 영향력과 지위가 점차 확장되기에 이르러 공동체 사회에 위협적인 의미로 등장한 것이다(Perez2005,138-141). 1478년에 설치된 스페인 종교재판소의 구체적인 역할이 유대인의 거짓

3) 디아스포라는 희랍어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흩어짐', '산재함'의 뜻을 지닌 보통 명사였으나, 삶의 터전을 잃은 유대민족의 이산과 방랑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되며, 현대의 문화적 확산과 교류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이산과 구별하여 사용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산은 종교문화적으로 열악한 세 가지 상황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첫째는 조국과 고향을 잃은 실향민으로서의 상황이며, 둘째는 성전을 대신하는 신앙 구심점의 상실 상황이고, 셋째는 신흥종교인 기독교의 부흥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세 상황은 랍비를 유대사회의 종교문화적 중심으로 인식하는 분위기와 함께 점차 회복되었으며, 유대교와 유대교인 집단의 특수성으로 자리매김하는 요소로 반전되었다.

개종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유대인의 거짓 개종 문제가 단순하고 명백한 방식으로 종교재판소의 주된 심문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왕권과 유대인의 경제적 결속관계는 신분의회에 의해 주도되는 지방권력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견제에 의해 틈을 보이게 되었고, 유대인 집단과 왕권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종교적으로 순수한 상태의 국가 통일을 표방하였던 역대 왕권들의 주장과 이율배반적이었을 뿐 아니라, 중세 이래 오랫동안 유대교인들에 대한 반감을 점차 증폭시키고 있던 일반 대중들의 믿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Baruque 2004,53-67).여기에 십자군 전쟁은 서구 사회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지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최고의 악재였음은 물론이었다. 하지만,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더욱 큰 악재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것은 종교적 통일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치적 통일의 움직임이었다.

본 연구는 정치적 통일을 바탕으로 근대국가로서 발돋움하던 스페인이 종교재판소의 설립과 운영을 국가의 통일 전략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의 문제의식을 스페인 공동체 사회에서 거짓 개종 유대인의 소재가 반유대주의를 증폭시키고 결국 스페인의 배타적 국수주의와 팽창주의를 형성하는 과정과 연결하려는 시도에서 구상되었다. 중세부터 형성되어왔던 반유대주의가 거짓 개종 유대인의 문제로 촉발되면서 구체적으로 종교재판소의 적극적인 종교-정치적인 심문과 형벌의 역할이 근대 스페인의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연구를 위한 문제제기와 접근 방법은 우선, 유대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반유대주의가 형성된 원인을 경제적 측면과 종교적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반유대주의를 규명하고, 유대인 탄압과 추방으로 연결되는 정치사회적 상황을 분석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근대 종교재판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찰하고, 이단 심문과 거짓 개종 유대인의 문제를 연결함으로서 스페인 근대 종교재판소에 있어서 반유대주의의 증폭 원인으로서 거짓 개종 유대인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며 본 연구의 결론을 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종교와 정치의 역학관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의 인문학 연구는 서구사회의 복합적인 문화적 요소에 대한 연구와 함께 병행되어야 그 완성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학제 간 연구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방법론과 설명 모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볼프강 벤츠의 지적(2005,240)은 매우 타당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세 이후 형성된 반유대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이단 심문소로서의 스페인 근대 종교재판소의 역할과 사회적인 기능에 있어서 유대인의 문제가 어떤 의미를 형성했는지 고찰함으로써 종교재판소와 반유대주의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제한적 목적을 설정하고 있음을 밝힌다. 향후, 역사학과 인류학, 사회학 및 종교학 등에 의한 복합적 시각의 후속 연구들이 스페인 종교재판소와 반유대주의 및 거짓 개종 유대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궁극적이고 종합적인 비평 시각과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유대인의 정의와 반유대인 정서의 원인과 형성

1. 유대인의 정의의 문제점

반유대인 정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밝혀야 할 기본적인 문제는 과연 어떠한 사람을 유대인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유대인에 대한 정의는 경우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를 낳을 수 있

을 만큼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우선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가 모두 유대인일 때 어느 지역(나라)에서 출생하든 유대인이 된다(류태영 1991,94-95). 이 경우 혼인이나 개인의 신념에 의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제외가 될 뿐 아니라,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인 모계에 의해서만 유대인이 정의되기도 한다(박재선 1999,20). 이는 유대인 집단에 남아있는 모계 사회적 전통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오랫동안의 이산과 방랑을 경험했던 유대인 집단으로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반유대주의가 진행되고, 종교재판소의 감시와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몇 세기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으로 각자의 사회에 귀속되어 정착을 하고 있었으므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모계적 전통보다는 부계적 전통이 보다 강력하였다. 그렇다면, 모계 혈통에 의한 인종적 정의 또한 역사의 흐름에 따라 그 적용 대상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현재 이스라엘 국법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스라엘 영토에 발이 닿는 순간부터 소급해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유대인에게는 이스라엘 국적 취득의 특권을 부여하여 놓았다(류태영 1991,95). 그러나 누가 유대인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에도 국적 취득을 둘러싸고 법정 시비가 빈번하게 제기될 만큼 복잡한 주제로 남아있다.

유대인의 정의를 언어적 요소를 근거로 결정하려는 언어학자들에게 유대인은 오늘날 중근동 지역에 분포하는 민족들이 사용하는 셈어족(Semiticlanguage)의 한 분파어인 히브리어[4]를 사용하는 소수의 유대민족을 지칭한다(김종빈 2001,126-127).이들은 오늘날 반유대주의를 일컫

4) 히브리란 단어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혹은 '옮겨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으며,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 붙혀진 이브리(Ivree)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종빈 2001,229).

는 안티세미티즘(Anti-semitism)이란 어휘를 그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히브리어 사용 인구에 의한 유대인의 정의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힌다. 구어(口語)로서 히브리어가 사어(死語)가 되는 동안, 문어(文語)로서의 히브리어는 이산 이후 각지로 흩어졌던 유대교인들을 연결시키는 제2언어로서 종교·문학·철학 등의 분야에서만 명맥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13세기 이후 서구 사회의 유대교인 박해 과정에서 히브리어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 따라서 히브리어를 민족 식별의 요소로 볼 수 있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측면으로 유대인을 구분하기란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인류학자나 역사학자들은 유대인을 결정하는 보다 주된 요인을 언어보다는 인종과 종교적 측면에서 찾고 있다. 유대인의 근원을 인종의 측면에서 찾는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의 열두 자녀에서 나온 열두 형제의 후손을 생각할 수 있다. 유대의 어휘가 열두 형제 중 넷째인 유다에서 나왔다는 근거로 유다의 자손만 유대인으로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친인척을 포함하여 유대인의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개념을 적용하면 터키의 일부와 시나이 반도를 포함하여 중동 일대에 살고 있는 인종 모두가 유대인으로 포함될 수 있다. 즉,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의 대부분 주민을 일컫는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노아의 장남 셈(Sem 혹은 Shem)의 자손을 유대인으로 명명하는 시각을 근거로 한 결과이지만, 현실성이 없다. 전자의 개념에 의한 인종적 정의 또한 부분적으로만 의미를 지닌다. 결국, 종족만으로 유대인을 정의하자면, 이렇듯 그 한계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종족으로는 유대인이면서도 사회문화적으로 자신을 유대인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많은 종족이 있을 만큼 현대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구분이 정의되지 못하

고 있다.

종교적 측면에서 유대인을 규정한다면 유대교인이라는 용어가 더욱 적절할 것이며, 많은 경우 유대인이라는 용어보다 훨씬 유연하면서도 적절한 용어로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포괄적 의미에서 셈족의 후손으로서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규정하는 경우 반유대 정서나 종교재판소의 심문 대상으로서의 유대인에 대한 보다 명확한 구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특히 우리 연구의 시대를 대상으로 할 때, 공식적으로는 유대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행세하면서도, 사실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른바 '거짓 개종' 유대교인의 문제와 관련해 생각한다면 유대교인이라는 용어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대인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유대인과 유대교인이라는 용어 또한 일괄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상황에 맞추어 세밀하게 적용되어야 할 민감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

종교재판소와 그 지지자들이 지닌 반유대주의적 정서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정의를 생각한다면, 유대인이란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는 마치 종교적 이질 집단에 대한 집단주의적 반응에 의해 형성된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박해의 규모와 내용의 실상을 고려한다면, 유대인에 대한 당시의 정의는 보다 인종적인 측면에서 형성되었으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반유대주의는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운동을 표방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인종적 문제를 이유로 탄압을 수행하고, 인종주의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거짓 개종자의 경우처럼 종교적으로 동질성을 표명하면서 결국은 자신들 집단의 공통 관심사에 연연하던 문화적 배경이 기독교 반유대주의 세력과 유대인 세력 모두에게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2. 반유대인정서의 원인과 형성

1) 경제적 측면

나라를 잃고 이산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뛰어난 경제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다. 서유럽에 정주하기 시작한 초기 유대교인들은 대체적으로 농경에 종사했다. 초기 유대인들은 농경과 포도원 작업을 하였다. 물론 대부분의 사회가 봉건제도에 의한 경제생활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건을 제조하는 공인계층과 판매하는 상인계층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던(SaloW. Baron1957,172;김양수 1983,6 에서 재인용) 틈새에 끼어든 유대인 집단이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김종빈 2001,193).여기에, 유대인이 기독교인을 노예로 삼을 수 없다는 법령이 발효되고, 계속해서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령이 선포됨에 따라, 이들은 점차 상업과 무역에 집중적으로 종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에서 노예가 없이 농업을 지속하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쫓기듯 뛰어든 무역업과 상업이었으나, 이들은 매우 뛰어난 수완과 능력을 발휘하였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정과 선민의식은 높은 교육수준과 문화수준을 가능하게 했으며, 무엇보다도 같은 종교, 같은 언어로 맺어진 연대감은 지역간의 무역과 상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기독교 문화권과 이슬람교 문화권이 상호 배타주의적 입장을 견고히 하고 극단적인 대치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유대인들은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무역업과 상업에서 수완을 발휘했던 것이다(김양수 1983,7-10;김종빈 2001, 192-197).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도 같은 종교와 언어를 바탕으로 강한 연대의식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나 이슬람교인들의 제한적

인 경제 활동과 비교하여 활발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상업과 무역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었다. 9세기 이후 서유럽과 중동 등지에서 이뤄지는 거래계약에서 히브리어는 중요한 국제어로 등장할 정도였다. 소수의 유대인 계층은 왕권과 영주권의 비호를 받으며 전 유럽에 흩어져 있는 동족들과 횡적인 연대를 통해 문화적 기호품 유통 시장에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김양수 1983, 6).

이질적인 종교와 문화를 고수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 그리고 불신은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재력과 상술에 대해 왕권은 물론, 많은 지방 영주들이 관심을 보였으며, 적지 않은 유대교인들이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재정 자문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유대인들은 거대한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기생하듯 살아갔지만, 놀라운 자생력을 갖춘 채 비상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듯 보였다. 따라서 일반 민중들의 유대교인들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 이들은 유대교인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를 주어서는 곤란한 부정적 존재로 인식하였다.

11세기 기독교는 이미 서구 사회의 정신적 중심이었다. 당시는 이른바 기독교 근본주의의 시대였으며, 1095년 클레르몽페랑(Clermont Ferrand)에서 최초의 십자군이 소집될 당시에는 반유대주의적인 감정이 이미 상당한 수위로 올라가 있었다. 십자군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매각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으며(Paul Johns 2005, 90), 고리대금업을 하던 유대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축적하게 되었다. 상당수의 유대교인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하층 신분계층을 구성하였으나, 세속 군주와 영주들의 특별한 보호 아래 상업이나 무역을 지속하거나 일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에 종사하는 일부 유대교인들에 대한 반감은 전체 유대교인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윤리적인 이유로 금지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고리대금업을 기독교인들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열등한 유대교인들이 독점적으로 맡고 있다는 사실은 반 유대인 정서를 확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유대교인들은 자신들 사회에서는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구약 성서에서 금지하는 대금행위를 금지하는 구절 때문이었으나, 이미 샤를마뉴 대제가 교회의 성물에 대한 담보를 금지하는 규정을 선포하면서 유대교인 및 기독교 상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김양수 1983,46)은 유대교인들이 고리대금업에 종사한 역사가 매우 길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유대교인들은 이교도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왔다. 게다가 물질적 이익을 바라며 돈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 가해졌던 유대교 사회의 제약이 12세기에 와서는 공식적으로 이교도들에게는 이자를 주고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허가하는 선언이 유대교 랍비들에 의해 공표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교인의 고리대금 행위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것이었다. 고리대금업으로 유대교인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들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통해 국가의 부를 축적한 것은 대부분의 왕권과 영주권 같은 세속 군주들이었다. 이들은 유대교인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의 공동수익자였던 것이다. 문제는 고리대금의 대상자가 주로 시골사람들이었으며, 경제적 능력이 극히 열악했던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빚이 전체 차용액의 43%를 차지할 정도였다(PaulJohns2005,106)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 중세 세속 군주권이 유대교인 사회와 경제적으로 매우 결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평민 세력들의 반유대인 감정이 격렬해지자, 유대교인 집단을 비호하지 않고, 그들과의 결속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며 지방 평민 세력을 포용하여 반유대인 정

책을 수립하려는 전략적인 변화를 보이게 되는 근본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속 군주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대교인과의 결속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러한 결속 관계는 지방 평민 세력의 전면적인 반발이 형성되기 이전까지의 단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었으며, 경제적으로 유대인 집단에 대한 반발이 커질 때에는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곧 지방 평민 세력이 주체가 된 유대교인을 박해와 학살이 세속 군주들에 의해 정치적인 정당성을 획득하는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2) 종교적 측면

종교적 신념을 달리 하는 유대교인들이 기독교 문화권에서 완전히 정착하기에는 근본적인 갈등이 있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유대교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반감과 더불어 성공한 유대교인들에 대한 질투와 비난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생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반 유대 정서가 형성되고 확산되는 종교적 원인의 결정적 동기는 십자군 전쟁이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상호 배타주의는 결국 대립과 갈등 끝에 전쟁으로 이어졌으며, 무수한 희생을 낳았다. 이 과정에서 유대교인들은 어느 편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상태로 나름의 부를 축적하며, 실질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다.

동로마 황제 알렉시우스 콤네누스의 원군 요청을 받아들인 우르반 2세의 십자군 제창은 이교도에 대항한 성전이었으며, '불신자 살해'라는 종교적 과제로 과장되어 확산되었다(김양수 1983,15). 십자군에 차출된 사람들은 생계를 뒷전에 던져둔 채 신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건 싸움에 뛰어들어야 했다. 이교도들이 성스러운 조국의 땅을 짓밟게 놔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교황 우르반 2세(Urban II, 1088-1099 재위)는 1095년 십자군 전쟁을 성전(聖戰)으로 명명하였으며, 십자군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언급하였다. 승리를 했을 때에는 노획물과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었으며, 전사했을 때에는 순교자의 왕관을 받을 수 있었다. 보상과 위로에 십자군은 힘을 낼 수 있었으나, 이교도에 대한 반감은 멀리 동방에 있는 이슬람교인들만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자신들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교인들에 대해서도 확산되었다. 멀리 있는 이슬람교인들과의 전쟁이 성전이라면, 가까이 있는 유대교인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통제는 그 기초작업이 되어야만 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가까이에 살고 있는 불신자'인 유대교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정당성을 얻기 시작했고, 급기야 유대교인 학살과 추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유대교인들은 기독교 사회에서 동화되지 않는 종교적으로 이질적이며 악의 무리와 같은 존재로 비쳐진 것이었다. 경제적 원인으로 유대교인들을 비호하던 세속 군주들 또한 종교적으로는 이들을 혐오하거나 부인하는 경향이 컸다(Paul Johns 2005, 91). 프랑스의 연대기 작가였던 귀베르드 노장(Guibertde Nogent, 1050-1124)은 십자군 전사들이 멀리 동방에 있는 이교도들과 싸우는 것보다 눈앞에 어떤 다른 민족보다도 더 신을 적대시했던 유대교인들과 싸워야 할 것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김양수 1983, 16-17). 귀베르드 노장의 주장처럼 신의 영광을 위한 이교도인과의 전쟁이라면 신을 죽게 만든 장본인인 유대교인들을 왜 가만 놔둬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은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권에 기생하여 살면서도 전혀 종교적으로 동화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배타적으로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으로 형성될만한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게 된 것이었다.

Ⅲ. 유대인 탄압과 추방

중세 기독교 성직자들은 이러한 유대교인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감당해야하는 사람들로 간주했다. 이들은 유대교인들이 자신들의 죄 값으로 신의 저주를 받고 터전을 잃고 종으로 예속되었기 때문에 저급한 신분에 어울린다고 판단했다. 유대교인은 이미 '신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아니었으며, 기독교인이 신의 백성이 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대교인들이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이 되거나 선두에 나선다는 것은 경계하고 걱정해야 할 일이었다(참조: 김양수 1983, 20-26).

1215년 교황 이노센트 3세(Inocent III, 1198-1217 재위)는 4차 라테란 공의회(Conciliode Letrán)를 소집하였다. 유대교인은 국왕이나 영주에게 예속되는 반노예상태로 존속되어야 하며, 기독교인을 지배할 수 있는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저급한 신분으로 추락한 유대교인을 비롯하여 십자군 전쟁의 적이었던 이슬람교인들 모두 가슴에 별 표지를 달아야 했다. 이러한 유대교인에 대한 박해와 엄격한 통제가 실시 될 때마다 수많은 숫자의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다. 박해와 통제의 강경정책은 유대교인에게 개종을 통해서 안락한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박해를 받거나 추방되는 고행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를 강요당하는 시련의 현실이었다.[5]

---

5) 그러나 4차 라테란 공의회의 내용은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사이에 평화의 공존 시기가 지속되고 있던 스페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도시 귀족들의 세력을 견제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대교인을 각료로 기용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화정책을 펼치는 경우도 흔했다. 이슬람교 세력과 기독교 세력 사이의 팽팽한 긴장과 갈등의 관계 또한 형식적인 견제의 관계로 완화되면서, 이른바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사이의 평화적인 '공존'의 시대인 콘비벤시아(Convivencia)가 한 동안 유지되었는데, '세 종교의 황제'라는 칭호를 들었던 알폰소 6세(AlfonsoVI, 1072-1109재위)와 현자 알폰소 10세(AlfonsoX el Sabio, 1252-1284재위)는 대표적인 유화정책을 펼치며 유대교인을 기독교 사회에 끌어들

스페인에서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반 유대교인 정서가 대규모의 반유대주의 운동으로 표출된 직접적 배경에는 재정복전쟁의 완성을 지적할 수 있다. 군소 기독교 왕국 사이의 견제와 대결 구도는 14세기 중엽에 이르면, 카스티야와 아라곤을 두 축으로 하는 비교적 안정된 구도로 정착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구도가 신민들에게 권력다툼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세속 군주와 도시들 사이의 유대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을 비호하던 왕권의 통솔력 또한 약화되었다. 반면 도시 지배 엘리트 계층의 신분의회는 유대인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소수 유대인들에게 허용되었던 공직을 금지할 것을 공론화 하며 빈번한 시위를 일으키곤 하였다.

유대교인에 대한 반감은 1350년 카스티야 왕국의 왕위를 둘러싸고 벌어진 내전에서 반유대주의를 내걸면서 도시민들의 지지를 업고 내전을 승리로 이끈 엔리케가 자신의 반대파인 신임 왕 페드로를 지지하는 유대교인들을 대규모로 학살한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폭력 사태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김원중, 104-105).엔리케의 전략적인 반유대주의 정책은 단순히 일회적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1350년대의 흑사병과 가뭄, 내전을 둘러싼 정치적 불안과 중앙권력과 도시권력 간의 갈등과 소요사태, 포르투갈과의 전쟁에서의 패전(1385) 등은 사회를 안정으로 정착시킬 강력한 중앙 통제 권력의 부재와 함께 지역적으로 누적되었던 사회적 불만은 그 희생양을 찾는 과정에서 반유대주의로 변질되기에 충분했다. 1390년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유대교인 집단 정착촌이 있었던 세비야(Sevilla)를 비롯하여, 톨레도(Toledo), 카탈루냐(Cataluña)지역

였던 왕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적 공존의 시기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유대교인에 대한 기독교인 특히 중하층 계층의 경제적 불만은 종교적 구실로 번번이 밖으로 표출되곤 하였기 때문이었다. 13세기 말기를 계기로 스페인은 반유대주의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JulioValdeónBaruque(2004,34-43)를 참조할 것.

에서는 신분의회의 비호에 의한 반유대주의 공격과 학살이 자행되었다 (JosephPérez 2002, 125-127).

1391년 세비야의 유대인 거주지에서 자행된 대학살을 계기로 유대교인에 대한 탄압은 반복되었고, 개종을 거부하는 유대교인들을 추방하라는 민원이 계속되었으며, 결국 종교재판소의 설치와 더불어 대규모 유대교인 탄압과 이단 심문의 장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1390년 세비야를 중심으로 시작된 유대교인 학살은 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Joseph Pérez 2002,127-130).당시 20여만 명에 달하던 유대교인들 가운데 많게는 1만 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반유대주의는 격렬한 폭력을 수반했다. 위기를 느낀 많은 숫자의 유대교인들이 서둘러 기독교로 개종을 할 수밖에 없었다. 1390년부터 1420년까지 개종한 유대교인들의 숫자는 10만 명가량이었다고 한다. 물론, 1420년까지도 개종에 반대하며 유대교 신앙을 숨기지 않고 유대교인 집단 정착촌에 머물렀던 숫자도 10만 명에 달했다는 사실은 1492년 대규모 유대교인 추방을 예고하는 잠재적인 불안 요소였다.

Ⅳ. 근대 종교재판소와 거짓 개종 유대인 문제

1. 근대 종교재판소의설치 목적과 기능

1220년 시칠리아에 페데리코 2세가 교황권과의 화해를 위해 종교재판소를 설치한 이래, 중세 재판소는 세속 군주권과 교황권의 세력 대결의 대상이었다. 심문과 화형 등의 극형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는 세속 군주권에 대항하여 종교재판의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 교구의 주교가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고, 프란시스코 수도회 수

사 신학자들이 재판을 담당하도록 종교재판소를 전면 개편하기에 이르렀다. 13세기 중엽에는 이미 주교 관할에 종교재판소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스페인의 경우에는 아라곤 왕국이 1242년 타라고나(Tarragona)공의회를 통해 페드로 알발랏(PedroAlbalat)주교 관할의 종교재판소 설치를 공식화했다. 이후 주교 관할 종교재판소는 이교혐의에 대한 소송이 필요할 때마다 주교 관할에서 설치되었다(BeatrizComella 1999,11-20,37와 RicardoGarcía Carcel1991,6-9을 참조할 것).

중세 종교재판소의 특징은 주교 관할 재판소로 표현될 수 있으며, 주교 관할 종교재판소는 왕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점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강력한 교황권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었다(Ricardo García Carcel1991,13). 규모가 작고 조직력이 약해서 국가를 이끌어갈 이데올로기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효용가치는 크지 않았다. 강력한 중앙집권에 의해 군림한 왕권은 종교재판소의 위상을 넘어서는 세속 재판소 조직을 강화하든지 교황권에 의존하여 보다 강화된 재판소를 필요로 하였다.

15세기 후반 스페인의 카스티야 왕국과 아라곤 왕국은 나름대로 강력한 중앙집권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주교 관할의 종교재판소를 통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원대한 이념과 이상을 펼쳐나가기에 한계가 있었다.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주교 관할의 종교재판소의 역량은 커진 왕권에 비하면 너무 작았던 것이다. 이교도와 대치 상황에 있는 스페인으로서는 교황권과의 결속을 유지하면서 국가적 정체성의 확립과 조직 개편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노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은 새로운 형태의 강화된 종교재판소의 설치와 종교재판관의 임명권을 허락해 줄 것을 교황 식스투스 4세에게 청원하였다. 1478년 11월 1일 교황 식스투스 4세는 카스티야 왕국과 아라곤 왕국에 두 명

에서 세 명의 주교나 사제를 종교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권한을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에게 각각 위임하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학위를 갖고 있는 마흔이 넘은 사제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조건만을 명시했을 뿐이었다(Ricardo García Carcel 1991, 10-12; Beatriz Comella 1999, 37-40). 재판관을 선임하는 기준과 권한은 교회를 떠나 세속권으로 옮겨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6]

근대 종교재판소는 중세 종교재판소가 비상 법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특별재판소'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중세 종교재판소는 상설 기구로서 존재로 불릴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상설 기구로서 존재하였다.[7]

중세 종교재판소와 근대 종교재판소의 근본적인 차이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없이도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심문'의 기능이 중세 종교재판소에서는 볼 수가 없던 부분이며, 재판소가 주체가 되어 의심스러운 사람을 불러 심문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이야말로 근대 종교재판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때의 '심문'은 주로, 형식적으로만 개종을 한 채 종교·문화적으로 이교도의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짓 개종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근대 종교재판소의 'Inquisition'이라는 용어는 '심문'을 의미하는 'Inquisitio'를 하는

---

6) 그러나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의 목적은 세부적으로는 매우 달랐다. 이사벨 여왕이 실제로 기독교 중심의 통일을 목표로 하며, 교회 자체의 개혁을 위한 권위를 장악하려 했던 것과 비교하여 페르난도 왕은 고위 성직자의 임명권을 통해 국왕으로서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 했다.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페르난도 왕에게 종교재판관의 임명권을 위임한다는 교황의 결정이 번복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하였지만, 결국 종교재판관의 임명권은 페르난도 왕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재판관을 임명하는 작업은 평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7) 두렵고 무서운 대상으로서의 종교재판소는 소위 말하는 '어두운 암흑의 중세'에서 나온 산물이 아닌 '찬란하고 밝은 르네상스의 빛' 아래 만들어진 근대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무척 흥미롭다.

주체이며 장소의 의미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8]

교황의 칙령이 발표된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를 때까지 가톨릭 공동 왕들은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했다. 카스티야 왕국에서는 1480년 9월 27일 미겔 데 모리요(Miguelde Morillo)와 후안 데 산 마르틴(Juande San Martín)이 최초로 왕권에 의해 선임된 종교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들은 곧바로 세비야에 종교재판소를 두게 되었다. '거짓 개종 유대인' 및 '이교도' 문제로 시끄럽던 카스티야 왕국은 1481년 2월 6일 최초의 종교재판을 세비야에서 개최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이단 심문과 거짓 개종 유대인 문제가 종교재판소의 주된 심문과 재판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2. 이단 심문과 거짓 개종 유대인 문제

이단 심문은 종교재판소의 기능 가운데 매우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유대교인과 이슬람교인들을 제외한다면, 이단 심문의 대상은 대폭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 11~12세기의 알비파나 발도파를 비롯한 이단의 문제를 비롯하여 15~16세기 종교개혁 추종 세력에 대한 문제도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스페인의 경우 이단파와 종교개혁의 활동이 재정복전쟁이라는 역사적 상황에 집약되어 있던 당시 현실과 비교하여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준은 되지 못하였다.

교황에 의해 선포된 이슬람교 세력에 대항한 십자군 전쟁은 재정복전쟁을 수행하는 스페인의 기독교 군소왕국의 입장에서 정신적 이데올로

8) 근대 종교재판소의 특징을 '이단'에 대한 '심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근대 종교재판소의 명칭 또한 '이단심문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종교재판소라 불러왔을 뿐 아니라 종교재판소의 역할이 이단을 심문하는 일 이외에도 다른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포괄적 의미에서 종교재판소라는 이름을 유지하는 것도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기와 공감대가 될 수는 있었지만,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었다. 유럽 여타지역에서는 이슬람교에 대항한 전쟁이 반이교도 전쟁을 의미하고, 나아가 반유대주의를 자극하였던 것에 반하여, 스페인 지역에서는 국토회복을 위한 전쟁의 의미가 종교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광적인 반유대주의로 확산될 특별한 동기가 없었던 것이었다. 북부 프랑스나 남부 독일, 오스트리아 지역에서 십자군 군인들에 의해 대규모로 자행되었던 반유대주의 학살은 스페인 지역에서는 13세기까지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1215년 이탈리아 지역과 프랑스 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제4차 라테란(Letrán)공의회의 반이교도 정책, 특히 반유대주의 정책조차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재정복전쟁이 완성되어 가는 단계에 들어서자, 기독교를 정신적 이데올로기로 삼아 정치적인 통일을 수행하고 있는 스페인 사회에서 유대교인과 이슬람교인은 추방을 당하지 않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만 했다. 문제는 이교도로서 살아남지 않기 위해 선택한 개종이 형식에 머물 때 야기되었다. 개종한 이교도들 가운데에서 진실한 개종이 아닌 형식적인 개종에 그치는 거짓 개종자가 의외로 많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과 현실적인 갈등과 문제가 벌어지곤 하였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스페인 사회에서 거짓 개종자의 문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인과 이슬람교인에 한정된 주제라는 점이다. 종교재판소의 법적 권한이 기독교인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유대교인과 이슬람교인, 그리고 이단파의 교인, 그리고 다른 종교의 추종자가 이단활동을 하고 있는 증거를 찾았다고 해도 종교재판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종교재판소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단을 심문하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가운데 이단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비도덕적이고 비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를 색출하기 위한 조직이었기 때

문이다. 종교재판소는 기독교를 신앙으로 섬기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들에게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한적 조직이었다.

엄청난 숫자의 유대교인들이 죽음과 재산몰수의 위기 상황 앞에 서둘러 기독교로 개종했으나, 그들의 종교와 문화적 전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스페인어로 하느님을 뜻하는 '디오스(Dios)'에서 's'가 마치 유일신이 아닌 신들의 복수형태를 지칭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였으며, 따라서 자신들만의 용어인 '엘 디오(el Dio)'라는 형태를 사용하였다. 기독교인들에게 '디오스'의 용어는 유일신인 하느님, 즉 성부와 그 아들 성자, 그리고 성령의 삼위일체에 대한 복수형태 어휘로 이해될 수 있었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유대교인들의 생각은 단호하게 부정적이었다. 하느님은 하나이지, 성령도 성자도 없다는 생각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엘 디오'라는 용어는 분명 보편적 정서의 기독교인들의 사고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BeatrizComella1999,50).그뿐이 아니었다. 이들은 예수상이나 성인상 등 형상을 갖춘 경배의 대상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지만, 이들의 정서와 감성에서 형상에 대한 종교적 경배는 허용되지 않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개종 유대인들이 유대교적 전통을 포기하지 않는 부분이 특히 장례 의식이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장례 절차와 의식 속에 죽음을 기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녕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아닌 모세나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모세의 율법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예수의 가르침은 이들의 관심 대상이 되지를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겉으로는 기독교로 개종하였지만, 이들의 언어와 풍습, 문화 전반에 걸쳐 깊이 침투해있는 유대교적인 요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개종 유대교인들의 삶의 내용을 눈치 챈 기독교인들의 반감은 즉흥적인 것이 아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데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점유하고, 정치적으로 세속 군주들과 결탁하면서, 종교적으로는 거짓 개종을 한 채, 문화적으로 유대교를 유지하는 거짓 개종 유대인들의 문제는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극렬한 반감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9], 결과적으로 종교재판소의 주된 심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11세기 초부터 13세기 말까지 스페인의 카스티야 왕국과 아라곤 왕국의 유대교인들에 대한 입장은 소극적이었다. 유럽의 전반적인 반유대주의가 뒤늦게 정착되기 시작한 것도 원인이었지만, 세속 왕권은 도시 주거민들과 신분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인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때문이었다. 그러나 재정복전쟁을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완성하는 단계에서 유대교인들의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차이점을 모르는 채 넘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선택을 해야만 하는 정책적 결정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초기 가톨릭 공동 왕들의 입장은 불분명했다. 세금과 고급 인력의 공급원으로서 유대교인이 지니는 긍정적인 역할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었다. 문제는 도시 중심 기독교 주거민들과 신분의회의 반유대주의였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 구조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소요가 터지도록 놓아두어서는 곤란했다.

1483년 재정복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즈음 가톨릭 공동 왕들에게 끊임없는 상소와 호소문이 도착하였다. 첫째는 개종 유대인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며 많은 숫자의 기독교도를 휘하에 부리고 있다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는 목소리였으며, 둘째는 개종 유대인의 대부분이 모세의 율법을 비밀리에 유지하고 있다는 고발이었다. 카스티야 왕국의 이사벨 여왕도 입장이 난처했지만,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왕의 입장은 더욱 곤란하였

9) 스페인 사람들은 개종자를 콘베르소(Converso)라 불러,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과 구분을 하였으며, 특히 거짓 개종 유대교인들을 '돼지' 혹은 '더러운 탐욕자'라는 의미에서 마라노(Marranos)라고 불렀다.

다. 왕 자신이 모계 쪽으로 개종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았으며, 많은 숫자의 각료와 대신들이 개종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다.

기독교를 반도 통일의 정신적 이데올로기로 활용하던 가톨릭 공동 왕들에게 있어서 종교적 통일은 제1 정책이었다. 1478년 교황 식스투스 4세에게 강화된 종교재판소의 설치를 청원하고 종교재판관의 임명권한을 부여받은 이들은 교황이 직접 종교재판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이교도 문제'와 '거짓 개종자' 문제를 들고 나오는 신분의회의 반감과 크고 작은 소요 사태 등의 대내외적인 문제를 말끔히 씻어주며 종교적인 통일이 정치적인 통일로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었다.[10] 결국 1487년 가톨릭 공동 왕들은 종교재판을 통해 최초로 네 명의 난동 혐의를 받은 거짓 개종 유대인을 공개 화형식(Auto de fe)에서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은 더 이상 개종 유대인의 보호자로서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며, 유대교인 추방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1492년 대규모 유대교인 추방은 종교적 형식을 띤 정책적 결정이었으며, '거짓 개종 유대인'들에 의해 야기된 반유대주의를 둘러싼 사회적 폭력과 무질서, 및 혼란의 상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보다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우리는 반유대주의의 원인과 형성의 문제를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측

10) 당시 그리스도 교회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를 싫어했으나, 일반 군중들은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인을 미워했다. 결국 종교적인 이유와 인종적인 이유가 교묘하게 결합된 형태의 반유대주의 감정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김종빈(2001,208-209)을 참조할 것.

면의 분석을 통해, 스페인 사회 전반에 구조적으로 형성되었던 반유대주의가 어떻게 세속 군주권이 유대 집단과의 결속 관계를 포기하고 결국 유대인 집단을 반사회적 성격의 위험 세력으로 규정하며 적극적인 반유대 정책을 펼쳐갈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되었는지 그 역학 관계의 배경과 형성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 세속 군주들은 개종 유대인들에 의한 경제적인 이익을 국가 재정의 주된 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판단했으나, 지방 신분 의회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강력한 반유대주의가 결국 세속 군주들과 유대인 집단과의 경제적 결속을 지적하고, 보다 분명한 태도를 촉구하는 저항으로 해석되자, 종교재판소의 종교적인 역할과 기능을 정치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반유대주의를 정당화하는 정책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근대 종교재판소의 설치와 운영은 비록 내용과 형식은 종교적이었으나, 세속 군주의 강력한 영향력을 받는 기구였으므로, 이들의 정치적인 선택과 활용 전략에 의해 거짓 개종 유대인들을 심문하고 재판하는 적극적인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력하게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스페인 종교재판소의 설치는 이단의 심문과 재판에 주된 목적이 있었으나, 이교도에 대한 경계와 박해는 직접적 활동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여러 이유에 의해 중세 이후 스페인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형성되어온 반유대주의 감정은 근대국가를 지향하던 스페인 공동체 사회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기독교적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스페인 사회를 재구성하고 통일하려는 정치사회적 노력의 과정에서 거짓 개종 유대인의 문제는 정치-종교적 목적에 의해 사회적 문제로 촉발되게 되었고, 스페인 기독교 사회의 재구성을 위한 정신적 중심에 스페인 근대 종교재판소가 자리하게 되었다. 정치적으로 개종을 설득하면서, 종교적으로 이단 혐의를 처

벌하는 이중적 접근은 결국 유대인의 추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스페인 근대 종교재판소는 거짓 개종 유대인의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를 반사회적 문제로 촉발하여 기독교 스페인 공동체의 재구성을 위한 정신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되며, 이는 사회적 소요를 해결하기 위한 세속 군주권의 정치적 선택과 종교재판소의 종교적 배타주의의 합작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참고문헌

강영수(1999), 뒤집어서 읽는 유태인 오천년사 , 청년정신.

김양수(1983),「십자군 시대에 있어서 반유대주의 운동의 원인에 관한 연구 -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원중(2002),「근대 초 스페인 종교재판소와 유대인 문제 -종교재판소 설치 동기 문제를 중심으로-」, 서양문명과 인종주의 , 지식산업사.

김종빈(2001), 갈등의 핵, 유태인 , 효형출판.

류태영(1991), 이스라엘, 그 시련과 도전 , 삼성출판사.

박재선(1999), 세계사의 주역, 유태인 , 모아드림.

박종욱(2006), 스페인 종교재판소 ,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최영순(2005), 성서 이후의 유대인 , 매일경제신문사.

Andhil Fineberg, Solomon(1943), Overcoming Anti-Semitism, New York and London: Harper & Brothers Publishers.

Baron, Salo W.(1972), A Social and Religious History of the Jews, New York: Colujbia Univ. Press.

Baruque, Julio Valdeón(2004), Judíos y Conversos en la Castilla Medieval, Valladolid: Ambito Ediciones.

Benz, Wolfgang(2001), Bilder Vom Juden, 윤용선 역(2005) 유대인 이미지의 역사 , 푸른역사.

Cohon, Beryl D.(1954), Judaism i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Bloch Publishing Company.

Comella, Beatriz(1999), La Inquisición Española, Madrid: Rialp.

García Carcel, Ricardo(1990), La Inquisición, Madrid: Grupo Anaya.

Johnson, Paul(1998), A History of the Jews, 김한성 역(2005) 유대인의 역사 2 , 살림.

Mitten, Richard(1992), The Politics of Antisemitic Prejudice, Boulder/San Francisco/Oxford: Westview Press.

Pérez, Joseph(2002), Los judíos en España, Madrid: Marcial Pons Historia.

▌논문투고일자 2008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자 2008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12월 11일